

### 《이현상 평전》 선정기

# 해방 전후 한국사에 대한 인식의 지평 넓히는 저작

누군가 고전을 일러 “처음 읽어 좋은 책, 두 번 읽어 다시 좋은 책, 읽을수록 새삼 새 책을 읽는 듯한 새 감동이 빚어지는 책”이라 했던만, 고전은 고전일 뿐 사람들에게 두 번 읽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시대 고전’은 태어나고 있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책방 한 구석에서 이름 모를 독자들과 만나고 있을 것이다.

글\_장동석 기자

8월 한 달 동안도 ‘우리 시대 고전’을 꿈꾸는 책들이 <출판저널> 서가를 공략했다. 그 중 기자들의 눈에 띈 책은 모두 9권. 조영남의 <현대인도 못 알아먹는 현대미술>, 강준만의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쿨에너지>, 유재현의 <아시아의 기억을 건다>, 강영삼의 <우리 어머 또똥한 품, 서귀포 바다>, 정이현의 <오늘의 거짓말>, 권여선의 <푸르른 틈새>, 최혜실의 <문자문화에서 전자문화로 : 최혜실의 디지털문화노트>, 안재성의 <이현상 평전>, 정수복의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이 그 면면이다.

이 달에도 선정위원들은 각자 다른 책을 첫 자리에 두었다.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은 “동남아시아를 이해하는 좋은 안내서”라며 유재현의 <아시아의 기억을 건다>를 추천했고, 조선일보 김광일 부장은 “컴퓨터, 모바일, 동영상 카메라, TV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면서 스토리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이다. 이 책은 그 전체적인 열개에 대한 친절 한 안내서”라면서 최혜실의 <문자문화에서 전자문화로 : 최혜실의 디지털문화노트>를 추천했다.

KBS 나신하 기사는 “평전과 위인전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 책의 한계를 사전에 인식하고 접근한다면, 그리고 주인공의 헌신적인 삶에 감정적으로 동화되지 않는 냉철함을 유지한다면, 해방 전후 한국사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면서 안재성의 <이현상 평전>을 첫 자리에 두었고, 소설가 김연수 씨는 정수복의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을 가리켜 “한국인과 한국문화에 관해서 서술한 거의 모든 책을 참고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 이 달의 책 선정위원

김광일 조선일보 문화부장 · 김연수 소설가  
나신하 KBS 문화복지팀 출판담당 기자 · 이이화 역사학자

### 재조명되는 빨치산 지도자 이현상

그렇게, 나름대로 치열한 경합을 벌인 9월호 이 달의 책의 영예(?)는 안재성의 <이현상 평전>이 차지했다. 나신하 기사는 “조국애와 이념에

<아시아의 기억을 건다> 유재현 지음 | 그린비 | 272쪽 | 값 13,900원

<메콩의 슬픈 그림자 인도차이나> <느린 희망> 등의 여행기를 통해 아시아 및 제3세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던 저자 유재현이 이번에는 아시아 역사를 보다 구체적이고 깊이있게 다뤘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2차대전 이후 역사, 문화적 변화상을 통해서 우리와 동떨어지지 않은 그들의 문화사적 지형도를 담아냈다.

<우리 어머 또똥한 품, 서귀포 바다> 강영삼 지음 | 자성사 | 216쪽 | 값 17,000원

제주도 서귀포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온 사람과 자연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책이다. 일반적인 여행 안내서가 아닌 제주 앞바다에서 50년을 살아온 저자가 개발 명목으로 변해가는 서귀포의 모습을 안타까운 심정을 담아 썼다. 서귀포 역사와 바다 속 지형, 서귀포에 사는 물고기 등을 망라해 정보면에서도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제주사람의 입말체와 방언이 섞인 옛 이야기가 곳곳에 첨가 돼 있어 재미있다.

<오늘의 거짓말> 정이현 지음 | 문학과지성사 | 328쪽 | 값 10,000원

정이현의 단편소설집. 이효석문학상과 현대문학상을 수상한 <타인의 고독> <삼풍백화점> <오늘의 거짓말> 등을 비롯한 총 열 편의 단편소설이 수록되어 있다. 20, 30대 독자들 개개인 이 지나왔을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구석구석 짚어내는 작가의 솜씨가 놀랍고, 이전의 작품들에 비해 생을 향한 작가의 시선이 좀 더 따뜻해진 것이 눈에 띈다.

<푸르른 틈새> 권여선 지음 | 문학동네 | 309쪽 | 값 9,500원

1996년 제2회 상상문학상 수상작. 소설가 권여선이 등단한 작품이다. 출판사가 없어지면서 절판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나오게 되었다. 젊음의 슬픔과 방황, 그 소진과 성숙의 의미를 독특하게 그려낸 성장소설로, 힘들고 아픈 시절을 보내고 어른이 되고 있는, 혹은 어른이 된 모든 청춘에게 바치는 청춘 송가이다. 80년대 후일담으로 치부해 버리기에 현재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청춘의 질문을 담고 있다.

<현대인도 못 알아먹는 현대미술> 조영남 지음 | 한길사 | 446쪽 | 값 18,000원

화수(畫手)로 불리는 조영남이 쓴 현대미술 안내서다. 어려운 현대미술을 어떻게 봐야 제대로 즐길 수 있는지를 현대인에게 알려주는 경쾌한 길잡이다. 화가로서의 조영남이 가지고 있는 엄격한 비평안과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풀어내는 그의 글솜씨를 함께 만날 수 있다.



투철했던 삶의 방식이 공산주의 빨치산 활동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인용된다는 점에 거부감을 느낄 독자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라면서도 앞서 지적처럼 "해방 전후 한국사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신하 기자는 "문학작품을 통해, 그리고 탈이념과 남북화해의 분위기에 힘입어 빨치산 지도자 이현상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세간 소식도 전해주었다.

소설가 김연수 씨는 "이현상에 대한 신화적 이미지를 벗겨내고 실증적으로 그의 생애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면서 "이현상은 남부군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남부군 시절의 이현상만 알기 쉬운데 식민지 시기부터 차근차근 그의 삶을 설명해놓았다. 책의 절반이 넘는 유격대 시절도 상세하다"면서 저자의 내공을 애들러 칭찬한다.

이이화 선생은 "저자는 그(이현상)를 진정한 휴머니스트이자 사회주의자로 평가한다. 그동안 우리 근현대사에서 이 주인공을 이데올로기에 따라 왜곡의 시각으로 다루어왔다. 이를 저자는 편견 없이 기록을 통해 철저하게 추적하여 객관적 평가를 이룩하였다"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과장되게 미화한 표현들이 군데군데 보여 아쉬움을 남긴다"고 평했다.

### 독특하면서도 재기 넘치는 서평

한편, 이 달에는 선정위원들의 독특하면서도 재기 넘치는 선정기를 읽는 즐거움에 넘쳤다.

소설가 김연수 씨는 《우리 어머 또똥한 품, 서귀포 바다》에 이런 평을 덧붙여 주었다. 《서귀포 바다》는 정말 특이한 책이면서도 이런 책이 출판되어 기쁩니다. 세상에 어느 하나 이야기가 없는 곳은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멋지게 보여주다니요. 더구나 서귀포에서 나서 자란 사람이 썼다니 제일 좋은 조건을 갖춘 셈입니다. 제주도에 대해서, 혹은 서귀포에

대해서 쓴 게 아니라 서귀포 앞바다에 대해서만 썼기 때문에 이 책은 새롭습니다. 또 사람이 살아가는 터전으로서 서귀포 앞바다를 썼기 때문에 읽을거리가 풍부합니다."

김광일 부장은 정이현의 소설 《오늘의 거짓말》을 이렇게 묘사했다. "정이현은 정치적인 작가다. 손해 볼 짓은 절대 안 한다. 독자에게 외면 당할 수 있는 문장은 절대로 쓰지 않는다. 그녀는 독자와 더불어 성공하겠다는 밤마다 수백 번씩 다짐하는 작가다. 소설책에도 리얼이 있다면 그런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할 것이다. 그만큼 자신 있는 정신무장이 돼 있으며, 그만큼 시대의 정중앙을 관통하는 글쓰기를 욕망하고 있다. 산을 옮길 믿음도 사랑이 없다면 헛것이다. 우주를 농단하는 철학이 담겨어도 재미가 없다면 소설로서는 빵점이다. 정이현 소설은 재미있다."

나신하 기자는 《아시아의 기억을 건다》를 다음과 같이 평했다. "친미적인 보수와 반미적인 진보' 양측 모두 거부하고 싶겠지만 엄연히 실존하는 담론이다. 대척점에서 있는 것 같은 두 가지 시각이지만, 세상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창이 미국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친미적이건 반미적이건 미국 중심의 도그마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 2차 대전 이후 아시아가 어떻게 변모해왔는가를 개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책속 여행이 될 것이다."

이이화 선생은 《문자문화에서 전자문화로》를 추천하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보내주었다. "저자는 컴퓨터가 인간소통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에 지식의 생산과 소비의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본다. 그리해 그 다양한 본질적 문제와 함께 문학, 연극, 영화 등 여러 분야의 영향을 짚었다. 이를 주도할 사람은 풍요로운 전통과 방법론을 가진 인쇄매체 시대의 이야기꾼으로 설정하면서 변화와 진화를 이룩했다고 강조한다. 다만 학술에의 영향 분야는 누락되어있어 보 완을 기대한다." **문**

《문자문화에서 전자문화로:최혜실의 디지털문화노트》

최혜실 지음 | 한길사 | 230쪽 | 값 12,000원

매체의 진화 속에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소통구조를 진단하고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예술인 문학의 변화와 미래를 전망하는 책이다. 저자는 이를 위해 팬픽과 인터넷 소설, 인터넷 문화와 컴퓨터 게임, 모바일 TV와 UCC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전통적 방식의 문학연구로 출발하여 지금은 디지털 문화읽기의 최전선에 서 있는 저자는 문화산업의 큰 화두인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등장하고 어떠한 경향으로 파급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짚어낸다.

《이현상 평전》 인재성 지음 | 실천문학사 | 608쪽 | 값 15,000원

남부군 총사령관, 빨치산의 전설적 지도자로서만 알려진 이현상의 생애가 복원되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 분단된 후, 반공이데올로기에 휘둘러 우리 현대사에서 철저하게 왜곡되어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현상. 조국 독립의 일념으로 공산당운동에 뛰어든 이래 평생 민족과 계급, 인간 해방을 위해 삶을 바친 한 사나이의 눈물겨운 투쟁이 노동운동가 출신 저자에 의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정수복 지음 | 생각의 나무 | 600쪽 | 값 18,000원

문화적 문법이란 그 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들 사이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거의 의식되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 구성원들의 행위에 일정한 방향을 부여하는 문화적 의미체계를 말한다. 이 책은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행위의 방향에 지침을 제시하는 '문화적 문법'의 기원을 찾아가는 과거로의 시간여행이며, 아울러 오늘날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정신적 문제의 뿌리를 찾아내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한 작업의 결과이다.

를 말한다. 이 책은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행위의 방향에 지침을 제시하는 '문화적 문법'의 기원을 찾아가는 과거로의 시간여행이며, 아울러 오늘날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정신적 문제의 뿌리를 찾아내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한 작업의 결과이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쿨에너지》 강준만 지음 | 인물과사상사 | 363쪽 | 값 12,000원

이영애부터 김갑수까지 매혹의 10인에게서 10가지 '쿨'의 성격을 발견하였다. 도도한 기품의 이영애, 新메미니즘의 확산 강급실, 빛나는 언론인 손석희, 마니아 기질의 김갑수 등 10인에게서 발견되는 10가지 유형의 '쿨' 함을 소개한다. 그 동안 각종 사회·정치적 문제들을 신랄히 비판해 왔던 강준만은 디지털 시대의 개인적인 감정 처세술로 '쿨' 에너지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개개인의 쿨 에너지가 모이면 하나의 시대정서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